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8 No.1 pp. 429~456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곽현주 · 최은영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sup>1)</sup>

곽현주<sup>2)</sup> · 최은영<sup>3)</sup>

### 초 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요인으로서 여성의 성역할 분리인식과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 노동시장 내 요인으로서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에 주목하여 이들 요인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데이터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가구소득>미취학 자녀유무>성역할 분리인식>학력>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일 년 내 출산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성역할 분리인식,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선호,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 기혼여성경제활동

### I. 서론

최근 OECD(2014)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3년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7%로서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인

1) 본 논문은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2015.4.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2) 제1저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yumin1215@hanmail.net)

3) 공동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eychoi66@cbnu.ac.kr)

60.2%에 비해 6.5%p나 낮은 수준으로 좀처럼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남성(74.7%)과의 격차는 21.0%p로서 한국은 칠레, 멕시코, 터키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에서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에 OECD는 한국이 2018년부터 잠재적 노동력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여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특히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OECD, 2014).

한국에서 여성경제활동 참가 논의의 핵심은 기혼여성이다. 이십대 초반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을 앞지르지만, 출산과 자녀양육 시기인 이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중반까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장 저조하다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도 다시 상승하는 M자형 곡선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형성기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생활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분석에 이러한 기혼여성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다(한국여성경제학회, 2012).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가족친화정책과 보육정책 등을 통해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은 극소수로서 대상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박기남, 2009), 보육정책 또한 파이프라인의 효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고 있다(원숙연, 2014). 그럼에도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보육지원정책(김현숙·성명재, 2007; 성효용, 2008; 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은, 2011; 이택면, 2012; 원숙연, 2014), 취업지원정책(류만희·유희원, 2013), 가족친화정책(이진경·옥선화, 2009; 김은정, 2013)과 같은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기혼여성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 그리고 여성을 불러들이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 과연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기혼여성의 삶이 노동시장이라는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첫째는 경제활동 참여와 같은 개인의 선택을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가치관 인식이라는 점이다. 즉, 정책은 인식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인식의 틀은 여성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원숙연, 2014). 특히 한국의 기혼여성은 남성부양자인식, 남녀 간의 역할분리,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같은 가부장적 요소들이 만연해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충분히 탐색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수요측의 제도화된 성차별기제와 같은 노동시장 상황요인은 미래의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여성의 기대와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노동시장 상황에서의 성차별적 요인들은 개별 여성 차원에서의 동기저하, 자기에언적 좌절된 경력기대(Mary, 1975; 나영선, 1997 재인용)로 이어져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기혼여성은 여전히 가정에서는 여성이 할 일, 남성이 할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은 엄마 말고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고 인식하며 아내의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인 현실 속에 처해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을 채용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고, 고용조정기에는 여성이 언제나 해고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게 비해 턱없이 낮고, 취업한 이후에도 승진이나 교육훈련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불리함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영위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선한승, 2010). 이렇게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처한 불리한 상황은 여성들이 취업에 소극적이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요인으로서 성역할 분리인식과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를, 노동시장 내 요인으로서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에 주목하여 이들 요인들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성역할 분리인식,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와 여성의 경제활동

성역할 분리는 여성과 남성을 사회의 각 부문에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영역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체계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회전체를 사회(공적영역)와 가정(사적영역)으로 분리시키고 남녀의 전담영역과 역할을 이념적·제도적으로 고정시켜,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재생산자)로 남성은 사회적 노동의 전담자(생산자)로 규정하는 것이다(강이수·신경아, 2001). 이러한 성역할 분리는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특히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전략에서 매우 주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남성부양자모델은 구조조정에서 여성을 가족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차적 해고대상으로 삼거나 여성직종을 위장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고용관행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에서는 보다 적나라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이영자, 2005).

하트만(Hartmann, 1981)에 의하면 성역할 분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존속시켜 주는 메커니즘인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저임금을 받게 해서 결혼하도록 조장하여 남성에게 의존하게 하고 기혼여성은 남편을 위해 가사를 돌보게 하여 남성들이 높은 임금과 가사분업 모두에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은 가사노동 및 양육부담을 안은 채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결정을 감행해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여성 자신이 성역할 분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성역할과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서 포틴(Fortin, N. M., 2005)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의 1990년, 1995년, 199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OECD 25개국의 성역할 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경제가 어려울 땐 남자가 우선 고용되어야 한다’와 ‘여성은 전업주부이어야 한다’ 등의 문항의 점수가

높은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음을 밝혔다. 크롬턴 외(Crompton et al., 2005)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94년과 2002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국, 체코, 노르웨이 세 국가의 성역할 태도와 여성의 고용형태, 가사노동 분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의 고용형태가 전일제, 시간제, 비취업인지에 따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파레와 벨라(Farre, L., & Vella, F., 2013)는 미국 청소년종단연구데이터(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 NLSY)와 미국 아동청소년종단연구데이터(Children and Youth Adults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 CYNLSY)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성역할과 여성노동시장 참여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1979년도의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2006년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남성의 성역할 태도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으로는 남편의 소득, 자녀수, 결혼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이미정(2002)이 2001년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하여 15-64세 여성을 대상으로 일에 대한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일과 관련하여 남성을 우선하고 자신의 일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태도를 지닌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희(2003)는 성역할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결혼상태, 자녀수, 가구주와의 관계를 선정하여 성역할과 이주(migration)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성역할은 학력, 가계소득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개념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숙연(2014)은 남성부양자인식, 모성박탈인식, 가족희생인식을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유형화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엄마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인지, 보육관련정책인지, 즉 인식의 영향인지 정책의 영향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보육관련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엄마역할 중에는 남성부양자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하는 성역할 분리인식이 여성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란 남편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취업에 남편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스스로 본인의 취업을 결정할 수 없는 여성들의 비주체성 및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한 지위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여성 자신의 성역할 분리 인식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스탠리 스티븐슨과 카이저(Stanley-Stevens, L., & Kaiser, K. C., 2011)는 센트럴 텍사스(Central Texas)의 첫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출산 후 6개월인 시점에 기대되는 고용시간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직업에 대한 여성의 선호보다는 출산 후 부인의 근로를 남편이 선호하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출산 전 고용기간과 자녀가 엄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서서는 자신의 어머니의 고용상태, 근로동기, 모성에 대한 의무, 직업만족, 부인의 일에 대한 남편의 선호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어 여성의 선호보다는 성역할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베네리아(Beneria, L., 1987)는 멕시코(Mexico) 가내노동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태도가 아내의 경제활동참여에 중요한 요소이며 남편의 반대는 아내의 경제활동참여 제재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연구대상자 남편 가운데 40%가 아내가 직장, 특히 집밖의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결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다(김경애, 1999 재인용).

김경애(1999)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빈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가정 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가내노동자와 가외노동자를 대상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이 여성의 노동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를 전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성이 경제활동참여



를 결정하는 데에는 남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고소득이 자동적으로 여성해방을 가져오거나 가족 내에서 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부장제도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역할 분리 인식 및 여성의 취업에 대한 배우자의 선호 정도가 각각의 개별적 요인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그 둘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 결정에 가정 내의 권력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역할 분리인식과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 2.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남녀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Campbell et al., 1997).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이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최근에는 21세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여성 노동력은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 받는 것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다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각종 통계를 통해 보고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인 현실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를 낮추게 하고 이는 다시 취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자 현상으로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원인변수로서의 성차별적 구조를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김영미(2007)는 복지국가의 여성노동권 지원정책과 정치·제도적 조건들이 여성의 노동권 보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변수를 통해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측정하였고,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구성방식과 내용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따라서 임금 및 노동시간 조건 등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없이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이것은 결국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 외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다 미시적인 수준인 직장 내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적 구조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보영(1993)의 연구에서는 성별분리를 통하여 여성을 여성지배직(전통직)으로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여성의 고용 불안에 대한 인식을 둔화시키고 결국 여성노동자내의 분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시장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미혼여성들은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떠날 것을 기대하며, 기혼여성은 자녀의 교육비나 주택이 마련되면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숙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미혼여성은 새로이 도입된 기술에 능숙하고, 기혼여성은 이전부터 사용하던 구식 기술에 능숙하기 때문에 상이한 노동시장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나영선(1997)은 노동시장애착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과 노동시장의 성별구조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속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과 작업장의 성별 구성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직업경력 지속기대는 현재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취업력 등, 노동시장에서 고용지위에 대한 기대, 인식, 태도 등의 노동시장 구조적 조건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유경희(2003)는 성차별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녀는 성차별이 관리직, 영업직, 감독직, 기능직 등을 중심으로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경력단절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공급은 저기능·저숙련 직종 또는 직무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낮은 임금 수준은 고학력, 고소득 가구의 여성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지역의 경제활동지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민서(Mincer, 1966), 클락과 섬머(Clark & Summers, 1980; 1982), 콜맨(Coleman, 1984)은 지역의 실업률과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밝혔고, 몰로(Molho, 1983), 엘호스트(Elhorst, 1996)는 도시의 산업부문별 구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실업률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지역별 실업률은 가구주가 실업일 가능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일을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이변송·장수명·김재영, 2001). 백옥미(2002)의 연구에서는 3차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대비 여성 임금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여성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넓히고는 있으나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차별과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국가비교를 한 김영미(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직장내 성차별이라는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장내 성차별이라는 개념은 취업상태이거나 취업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경험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노동시장 성차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b)이 조사하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 KLoWF)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변화와 가족생활,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과 사건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는 가구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64세의 여성개인을 모두 추적 조사하는 개인단위의 패널로서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에 2차, 2010년에 3차, 2012년에 4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수는 1차에서 4차까지 각각 만 여명 정도이며 4차까지 조사가 유지된 여성은 7,232명으로 72.3%의 비교적 양호한 표본유지율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1-4차의 가구용, 개인용, 일자리용 데이터와 출산력데이터, 직업력데이터, 현재일자리용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 중 하나인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2012) 중 '경제참여와 기회 지수'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는 국내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과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여 지역 여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2010년 기준)부터 산정하고 있는 지수이다. 대표성제고, 경제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복지의 4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의 2007년도와 2009년도의 '경제참여와 기회 지수'를 여성가족패널 가구데이터의 지역변수와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패널 데이터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추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차적으로 1차에서 4차<sup>4)</sup>까지 기혼이며 유배우자

4) 본 논문의 주요 연구방법이 2차년도와 3차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횡단분석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을 1차에서 4차까지의 상태를 유지한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 조사 기간에 걸친 일자리의 동태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이는 이후의 <표 4>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1차 시점의 연령이 20-49세에 해당하는 여성을 추출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순수 임금근로에 속한 기간만을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1차에서 4차까지 한 번이라도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특수고용직에 속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와 비취업상태의 경험만이 있는 여성을 추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제활동 참여기간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기준 중 한 가지가 전일제와 시간제, 비취업으로 나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비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근로자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하는데 있어 임금근로자와는 상당히 다른 인적, 직업적 특성이 존재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요 변수인 성역할 분리인식, 남편 선호인식, 취업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여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40명의 표본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 2. 변수의 구성방법

### 1) 종속변수(경제활동 참여기간)

여성가족패널 데이터의 일자리 데이터는 생애 최초의 일자리에서부터 조사시점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일자리와 새로 시작되는 일자의 시작년도와 월, 그만둔 연도와 월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설문지 기준 시점인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각각의 22개월 동안 전일제, 시간제, 비취업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조사하였다. 전일제에 해당하는 기간은  $\times 1$ , 시간제에 해당하는 기간은  $\times 0.5$ , 비취업에 해당하는 기간은  $\times 0$ 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참여기간은 0에서 22점까지의 연속변수로 구성된다.

### 2) 독립변수

#### (1) 성역할 분리인식

성역할 분리인식은 여성개인용 설문지의 가족관련 가치관 문항 중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에서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남녀 간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

남편의 선호인식은 부인이 일하는 것을 남편이 선호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라고 보았다. 사용된 문항은 '남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 남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이다. 문항은 1점(매우 반대)에서 5점(매우 찬성)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부인의 취업에 대해 남편이 찬성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2012) 중 2007년과 2009년의 경제참여와 기회 지수를 여성가족패널 가구데이터의 지역변수와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참여와 기회 지수는 고용률 성비, 남녀임금 성비, 관리직 근로자 성비, 상용직근로자 성비의 백분율을 구한 다음, 관리직 근로자 성비에는 취업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상용직 근로자 성비에는 임금근로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뒤, 산술평균하여 지수값을 선정하는 것으로 100점에 해당하면 완전평등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경제참여와 기회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패널조사의 설문시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4) 통제변수

#### (1) 연령

실제나이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제곱을 사용하였다.

(2)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지난해 가구총소득을 월단위로 환산한 뒤 본인의 월소득을 제외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4) 미취학자녀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더미처리하였다.

(5) 일 년 내 출산경험

일 년 내 출산경험 유무는 출산력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설문 시점인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일 년 내에 출산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출산경험 있음은 1, 없음은 0으로 더미처리하였다.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수의 측정방법

변 수		측정방법
통제 변수	연령	● 실제나이(회귀분석에서는 제곱값을 사용함)
	학력	●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학졸/ 대학원졸업이상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제외함 (회귀분석에서는 로그변환함)
	미취학자녀 유무	더미처리함(미취학자녀 있음=1)
	일 년 내 출산경험	더미처리함(출산경험 있음=1)
독립 변수	성역할 분리인식	●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4점 likert척도(역코딩)/값이 클수록 남성부양자인식을 강하게 가짐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 선호	● ‘남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 남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Likert 척도/ 점수가 클수록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함

변 수	측정방법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2007년, 2009년)의 지역별 고용률 성비, 남녀임금 성비, 관리직 성비(가중치), 상용직 성비(가중치) 백분율의 평균값</li> <li>• 고용률 성비= 여성고용률/남성고용률</li> <li>• 남녀임금 성비= 여성근로자임금/남성근로자임금</li> <li>• 관리직 성비=(여성관리자/ 남성관리자)×(남성취업자/여성취업자)</li> <li>• 상용직 성비=(여성상용직/ 남성상용직)×(남성임금근로자/ 여성임금근로자)</li> <li>• 0~100점을 가지며 점수가 클수록 노동시장이 성평등함</li> </ul>
종속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응답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 2010년 응답자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각각 22개월의 기간 중 전 일제로 일한 기간은 기간×1/ 시간제로 일한 기간은 기간×0.5/ 비취업기간은 ×0을 부여하여 22개월 내 일한 기간을 계산함.</li> <li>• 0~22의 값을 가짐</li> </ul>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2008년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선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202명(8.3%)으로서 30와 40대에 비해 20대가 낮게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를 기혼이며 유배우자인 여성으로 한정된 데에 따른 결과로 여성의 초혼연령<sup>5)</sup>이 늦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170명(7.0%), 고졸이상이 1,188명(48.7%), 전문대 졸업이상이 440명(18.0%), 4년제대학 졸업이상이 579명(23.7%), 대학원 졸업이상이 62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1,120명(45.9%), 일 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148명(6.1%)이었다.

5)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4년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13년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인하여 1990년(24.8세)에 비해 4.8세 늦어진 29.6세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표 2〉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특징

(N=2440)

2008년도			2010년도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평균 40세)	20-29세이하	202( 8.3)	연령 (평균 40세)	20-29세이하	73( 3.0)
	30-39세이하	1,283(52.6)		30-39세이하	1,137(46.6)
	40-49세이하	955(39.1)		40-49세이하	1,230(50.4)
학력	중졸이하	170( 7.0)	학력	중졸이하	169( 6.9)
	고졸	1,188(48.7)		고졸	1,186(48.6)
	전문대졸	440(18.0)		전문대졸	442(18.1)
	4년제대졸	579(23.7)		4년제대졸	578(23.7)
	대학원졸업이상	62( 2.5)		대학원졸업이상	64( 2.6)
	무응답	1		무응답	1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1,120(45.9)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890(36.5)
	없음	1,320(54.1)		없음	1,550(63.5)
일 년 내 출산경험 여부	있음	148( 6.1)	일 년 내 출산경험 여부	있음	70( 2.9)
	없음	2,292(93.9)		없음	2,370(97.1)
근로형태	전일제	382(15.7)	근로형태	전일제	507(20.8)
	시간제	243(10.0)		시간제	289(11.8)
	비취업	1,815(74.4)		비취업	1,644(67.4)
월본인소득 (비취업자제 외, 625명 평균138만원)	100만원 미만	239(38.2)	월본인소득 (비취업자제외, 796명 평균 135만원)	100만원 미만	310(38.9)
	100-200 미만	238(38.1)		100-200 미만	327(41.1)
	200-300 미만	85(13.6)		200-300 미만	82(10.3)
	300 이상	63(10.1)		300 이상	77 (9.7)
월가구소득 (본인소득제 외, 평균 291만원)	200만원미만	517(21.2)	월가구소득 (본인소득제 외, 평균 313만원)	200만원미만	493(20.2)
	200-300만원미만	795(32.6)		200-300만원미만	707(29.0)
	300-400만원미만	574(23.5)		300-400만원미만	569(23.3)
	400만원이상	530(21.7)		400만원이상	641(26.3)
	무응답	24(1.0)		무응답	30(1.2)

연구대상자의 현재의 근로상태<sup>6)</sup>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382명(15.7%),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243명(10.0%)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507명(20.8%),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289명(11.8%)인 것으로 나타나 2008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도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 625명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39명(38.2%), 100-200만원 미만이 238명(38.1%), 200-300만원 미만이 85명(13.6%), 300만원 이상이 63명(10.1%)이었으며 평균소득은 1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1만원으로 200만원 미만이 517명(21.2%), 200-300만원 미만이 795명(32.6%), 300-400만원 미만이 574명(23.5%), 400만원 이상이 530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 대상자들의 성역할 분리인식, 남편 선호인식, 경제활동 참여기간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성역할분리인식 평균은 2008년 2.59(SD=.79), 2010년 2.60(SD=.76)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선호인식 평균은 2008년 3.20(SD=1.01), 2010년 3.15(SD=.97)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여기간은 2008년 대상자가 5.56(SD=8.55), 2010년 대상자가 6.56(SD=8.96)으로 나타나 2010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2008		2010		범 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 분리인식	2.59	.79	2.60	.76	0-4
남편 선호인식	3.20	1.01	3.15	.97	0-5
경제활동 참여기간	5.56	8.55	6.56	8.96	0-22

6)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8년도에 25.7%, 2010년도에 32.6%로서 우리나라의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8년 49.8%, 2010년 49.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2014a)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표집과정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3.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참여의 동태적 유형<sup>7)</sup>

다음으로 여성가족패널의 1차에서 4차까지의 일자리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 2,440명의 경제활동이 5년여의 기간 동안 어떠한 유형으로 유지되는지를 분류해 보았다. 분류 결과 지속적으로 전일제로 근무한 여성이 324명(13.3%), 대체로 전일제로 근무한 여성이 201명(8.2%), 대체로 시간제로 일한 여성이 115명(4.7%), 전일제와 시간제를 혼합하거나 짧은 경력기간을 가진 여성이 524명(21.5%), 단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이 1,276명(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47.7%의 여성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4〉 대상자의 경제활동참여의 동태적 유형

유형	빈도	백분율
지속적 전일제	324	13.3
대체로 전일제	201	8.2
대체로 시간제	115	4.7
혼합형	524	21.5
지속적 비취업	1,276	52.3
합계	2,440	100.0

7) 여성가족 패널데이터의 일자리 데이터는 생애 최초의 일자리에서부터 조사시점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일자리와 새로 시작되는 일자리의 시작연도와 월, 그만둔 연도와 월을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1차 설문지 기준 시점인 2007년 9월부터 4차 설문지 기준시점인 2012년 5월까지의 총 57개월 동안 취업에 참여한 기간을 분석하여 전 기간 동안의 경력유형을 살펴보았다. 57개월 중 50개월 이상 전일제 일자리를 가졌으면 지속적 전일제, 57개월 중 반 이상인 29개월 이상 전일제 일자리를 가졌으면 대부분 전일제, 29개월 이상 시간제 일자리를 가졌으면 대부분 시간제, 한 번도 근로하지 않았으면 지속적 비취업, 그 외의 경우는 혼합적 취업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종단연구로서의 여성가족패널의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서 여성이 생애 기간 동안 어떠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를 제외한 결과이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방법이 2차년도와 3차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횡단분석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을 1차에서 4차까지의 상태를 유지한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이 대상자의 일자리의 동태적 유형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 4. 지역별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과 대상자 분포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으로 활용한 지역별 경제참여와 기회 지수와 본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2007년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의 평균점수는 53.8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70.3점)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47.9점)였다. 2009년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의 평균점수는 52.36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67.8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48.0점)였다. 두 개 년도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100점이 완전평등상태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절반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특별시(11.7%)와 경기도(13.5%)에 다소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3.0%)에 가장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인구분포도를 고려할 때 연구대상자의 인구분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5> 지역별 노동시장 성평등 지수와 대상자분포

지 역	노동시장 성평등수준		연구대상자수(%)
	2007년	2009년	
서울특별시	56.7	54.4	286(11.7)
부산광역시	51.7	52.8	81(7.4)
대구광역시	55.0	51.9	179(7.3)
인천광역시	52.5	51.1	174(7.1)
광주광역시	54.1	52.7	119(4.9)
대전광역시	53.7	51.0	146(6.0)
울산광역시	47.9	48.6	164(6.7)
경기도	52.2	50.5	331(13.6)
강원도	52.9	56.6	94(3.9)
충청북도	56.7	51.7	98(4.0)
충청남도	51.2	49.0	123(5.0)
전라북도	53.8	51.3	102(4.2)
전라남도	51.5	48.0	92(3.8)
경상북도	51.1	51.0	127(5.2)
경상남도	50.8	50.1	151(6.2)
제주특별자치도	70.3	67.8	73(3.0)
평균	53.88	52.36	
표준편차	4.93	4.64	

주 : 완전평등수준=100.0

## 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역할 분리인식,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 및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학력, 가구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일 년 내 출산 경험 유무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성역할 분리인식,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으로 나누어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발생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2008년 .205, 2010년에 .250이었으며, 투입된 변수들은 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 가구소득> 미취학 자녀유무> 성역할 분리인식> 학력>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 일 년 내 출산경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순서는 2008년과 2010년의 경우가 동일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와 일 년 내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활동 참여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인식할수록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취업하는 것을 남편이 선호한다고 인식할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 참여기간			
	2008년		2010년	
	$\beta$	t	$\beta$	t
연령	.01	.26	-.01	-.20
학력	.07	3.67***	.05	2.55*

	경제활동 참여기간			
	2008년		2010년	
	$\beta$	t	$\beta$	t
가구소득	-.18	-9.78***	-.18	-9.94***
미취학자녀 유무	-.17	-7.11***	-.14	-5.90***
일 년 내 출산경험	-.05	-2.51*	-.03	-1.81*
성역할 분리인식	-.06	-3.15**	-.09	-5.25***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선호	.33	17.80***	.39	21.28***
노동시장 성평등수준	.05	2.70**	.04	2.09*
R <sup>2</sup>	.208		.252	
수정된 R <sup>2</sup>	.205		.250	
F	78.460***		100.733***	

주1 : +p<.1, \*p<.05, \*\*p<.01, \*\*\*p<.001

주2 : 연령은 제곱값을 사용하였음

주3 : 학력은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이상으로 구분하였음.

주4 : 가구소득은 본인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로그전환 한 값을 사용.

주5 : 미취학 자녀유무(있음=1), 일 년 내 출산경험(있음=1)은 더미처리하였음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요인으로서 성역할분리인식과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의 선호, 그리고 노동시장 내 요인으로서 노동시장 성평등 수준에 주목하여 이들 요인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데이터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인식할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그리고 많은 정책들에서 성역할 분리 인식에 대한 방안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성역할 분리인식에 대안으로서 시간제 일자리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뿐 아니라

남성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남녀가 똑같이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올로프(Orloff, 1993)가 제시한 양성평등이 각기 노동자이자 동시에 양육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역할 분리인식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미참여는 가구해체시 여성의 빈곤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여성 스스로 성역할 분리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역할 분리인식을 가진 어머니의 양육은 다음 세대의 양성평등 인식형성에도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김수정, 2013), 여성들의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부인의 경제활동을 남편이 선호한다고 여성들이 인식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이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의사가 아닌 남편의 의사를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멕시코 가내노동 연구에서 남편의 반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제재요인이 된다고 밝힌 베네리아(1987)의 연구, 한국의 가내노동과 가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의 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김경애(1999)의 연구, 센트럴 텍사스의 첫아이를 가진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 시점에 기대되는 고용시간에 남편의 선호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스탠리 스티븐슨과 카이저(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비주체성은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들어서도 동서를 불문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논함에 있어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본질적인 원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관계 정립이 정치·사회적 아젠다로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에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격차가 작을수록 다음 해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체 노동시장의 성불평등한 구조는 각각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의 성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전체 노동시장환경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들이나 미취업여성들은 외부에서 노동시장을 탐색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환경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를 정책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서의 남녀격차 줄이기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가치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저절로 증가하게 되리라 본다.

넷째,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과 일 년 내에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경제활동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온 수많은 연구결과(김지경, 2004; 성효용, 2008; Kangas & Rostgaard, 2007; Farre & Vella, 2013)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모성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출산의 경험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보다 더 작으며 2010년에 올수록 그 영향력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의 젊은 기혼여성들의 출산 후 직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기존의 기혼여성에 비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들이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력을 유지하여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출산의 경험 자체보다 보육의 어려움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더 큰 장애요인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가구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부양자 인식이 기혼여성에게 만연해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중산층 여성이 육아나 가사와 병행해서 경제활동을 할 만큼 기회비용이 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금전적 동기가 미약한 상태에서 여성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노동시장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중산층 기혼여성의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내에서, 그리고 전체사회에서 여성들을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영미, 2008).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여섯째, 연구대상자들이 1차에서 4차에 걸쳐 어떠한 유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속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한 여성과 지속적으로 비취업 상태였던 여성을 제외하고 34.4%에 해당하는 여성이 불안정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여성들은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를 오가며 일을 하거나 기간 중 아주 짧은 기간만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로서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지속을 위한 별도의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4차에 걸친 여성가족 패널데이터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연구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성역할 분리인식 및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및 성차별과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장애요인과 노동시장내 장애요인으로서의 개념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서 이에 따른 한계를 갖는다. 우선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본 데이터의 조사시기인 2007년에서 2012년의 기간이 제2의 경제 위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또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다루지 못했음을 밝힌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강이수·신경아(2001). 여성과 일: 한국여성 노동의 이해. 동녘.
- 김경애(1999). 한국여성의 노동과 섹슈얼리티-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 풀빛.
- 김수정(2013).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자녀수 및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103-134.
- 김영미(2007). 복지국가와 여성노동권: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의 관계에 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2008).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과 복지국가”. 사회복지연구. 제36권. 55-80.
- 김은정(2013).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25권 제2호. 168-198.
-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3호. 91-104.
- 김현숙·성명재(2007).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 제12권 제1호. 75-117.
- 나영선(1997). 여성의 노동시장 애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만희·유희원(2013).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지원성과에 관한 연구: 희망리본사업 참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5권. 255-279.
- 민경희(200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역할과 이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9권 제2호. 97-143.
- 박기남(2009).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제2호. 37-71.
- 백옥미(2002). 모성정책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한승(2010). “한국여성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공공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59-88.
- 성효용(2008).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여성경제연구. 제5권 제2호. 81-98.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여성가족부(2014.6.26).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원숙연(2014). “정책? 인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요인”. 한국 여성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45-164.
- 유경희(2003). 고용상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02). “젊은 세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한국인구학. 제25 권 제2호. 139-161.
- 이번송·장수명·김재영(2001). “미시, 노동: 결혼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 지역의 노동시장조건과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583-623.
- 이보영(1993).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인식에 대한 연구: 대구지역 소규모 직물사업 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영자(2005). “남성부양자모델과 여성빈곤”. 성평등연구. 제10권. 1-33.
- 이진경·옥선화(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제10권 제3호. 59-83.
- 이택면(2012). “미취학아동과 여성경제활동: 다층모형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효과추정”. 2012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최성은(2011).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 연구. 제27권 제2호. 85-105.
- 한국여성경제학회(2012). 젠더와 경제학, 서울: PEARSON.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http://klowf.kwdi.re.kr/>
- 허남재·석재은(2011).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2호. 139-163.
- OECD(2014.7.4).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OECD 대한민국 대표부.

Beneria, L.(1987). The Crossroads of class and gender: Industrial homework, subcontracting, and household dynamics in Mexico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89-102.
- Clark, K. B., & Summers, L. H.(1980). Demographic differences in cyclical employment variation.
- Clark, K. B., & Summers, L. H.(1982). Labour force participation: timing and persistenc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9(5), 825-844.
- Coleman, T. S.(1984). Essays on aggregate labor market business cycle fluctu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Crompton, R., Brockmann, M., & Lyonette, C.(2005). Attitudes, women's employment and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a cross-national analysis in two wav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9(2), 213-233.
- Elhorst, J. P.(1996). A regional analysis of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acros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30(5), 455-465.
- Farre, L., & Vella, F.(201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its implications for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a*, 80(318), 219-247.
- Fortin, N. M.(2005).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labour-market outcomes of women across OECD countr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3), 416-438.
- Hartmann(1981).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In Lydia Saigent(Ed.), *Women and revolution*. Boston: South End Press.
- Kangas, O., & Rostgaard, T.(2007). Preferences or institutions? Work—family life opportunities in seven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7(3), 240-256.
- Mincer, J.(1966).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unemployment: a review of recent evidence. *Prosperity and Unemployment*, 73-112.
- Molho, I. I.(1983). A regional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married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in the UK. *Regional Studies*, 17(2), 125-134.

- Orloff, A. S.(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3-328.
- Stanley-Stevens, L., & Kaiser, K. C.(2011). Decisions of first time expectant mothers in Central Texas compared to women in Great Britain and Spain: Testing Hakim's Preference Theor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13-130.

## Abstract

# Influence Factor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or Married Women

: Focusing on the Gender Unequal Structure in Household and Labor Market

Hyun-ju Gwak<sup>8)</sup>, Eun-young Choi<sup>9)</sup>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gender unequal structure in household and labor market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For this, 2440 married women were selected as a sample out of the 1st ~ 4th waves respondents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KLoWF) and the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Regional Gender Equality was merged .

PASW 18.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s that the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which had effects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was preference of husband for wife's employment > household income > preschool children > gender role division attitudes > education level > gender equality of labor market > birth experience. Based on this finding, several alternativ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increase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Key Words :** Gender Unequal Structure, Gender Role Division Attitudes, Preferences of Husband for Wife's Employment, Gender Equality of Labor Market,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

8) Chungcheongbuk-do Women's Development Center

9) Chungbuk National University